

고 성봉 김성배 박사님의 생애와 그 업적

진 태 하
(명지대 교수, 국어학)



성봉 김성배 박사께서 '85년 1월 16일 새벽에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선생께서는 평생을 학문에 몸담고 계시며 국어학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을 뿐 아니라, 본 국어연구소가 생긴 이래로 연구소의 운영 위원으로 계시면서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던 중 할 일을 많이 남겨 놓고 돌아가심에 깊은 애도의 뜻을 올린다.

금년 1월 15일 오후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서대문 적십자병원 응급실에서 다섯 사람의 의사가 밤새워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였으나, 아무런 보람도 없이 숨을 몰아 쉬시는 성봉 선생님에게서 끝내는 산소 마스크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주치의사를 대동하여 집으로 모셨으나, 6시 50분 마지막 큰 숨소리를 남기시고 영면하시니, 1917년 음력 7월 27일 충남 부여에서 나시어 향년이 68세였다. 아직도 너무나 정정하셨고, 그 높으신 학력으로 아직도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친지·동료·제자들은 빈소에 모여 한없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당뇨의 지병이 있기는 하셨으나, 한결같이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노당약장의 건강을 유지하시어, 누구도 성봉 선생님이 이렇게 즐지에 떠나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즐지에 유명을 달리하신 병명은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식도 정맥 파열’인데, 당뇨병으로 지혈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년 설에는 내환으로 인하여 해마다 드리던 세배를 꺾하여 송구스러워 하던 중, 1월 3일 사모님과 함께 오히려 제자의 집을 찾아 주십에 더욱 송구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다. 이 날의 찾아 주십이 마지막 길이 되실 줄이야! 지금도 그 때 누워 있는 내자를 가리키며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하네.” 하시던 온화한 말씀이 귀에 쟁쟁한데, 유명을 달리하셨음은 참으로 믿을 수 없다.

성봉 선생님은 남달리 제자를 사랑하셨다. 결코 의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고나신 온화함과 다정다감으로 아버지 같은 사랑을 베풀었다. 제자를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랑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졸업 후의 취직 알선까지도 희생적으로 돌보셨으며, 쌍을 맺어주는 중매일까지도 애쓰셨으며, 결혼 주례는 천쌍이 넘었다고 자랑하셨다. 주례를 하시면서도 반드시 손수 예물을 마련하여 가지고 가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선생님은 일생 교육계에서 무엇보다도 후진 양성에 힘쓰셨으니, 크게 나누면, 광복전 부여 일대에서 국민학교 교사시절과 광복후에는 국어 교사 시절, 서울문리사범대학에서 국어과 교수시절,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국문학과 교수 시절 등으로 이어진다. 선생님의 최대 즐거움은 집에 들면 슬하에 5남 2녀의 기라성같은 자녀들이 꼴땃하고, 밖에 나가면 국내외에 초등학교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옛날 공자의 제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을 가진 것이라고 자랑하셨다. 교육계에 있으면서 아무리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스승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제지간이 허다하지만, 성봉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누구나 졸업 후에도 잊지 않고 찾음은 무엇보다도 그 고매한 인품과 온돌같이 따사로운 인간미에 저절로 우러나는 숭배심에서였다.

성봉 선생님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근면성을 선천적으로 지니셨다. 대학 강의, 국어순화, 방송 출연, 원고 집필, 각종 회의 참석, 주례

등 거의 한가로운 틈이 없으신 데도, 제자의 편지 한장, 연하장 한장도 그저 받고 마는 일이 없으셨다. 또한 형식적인 회답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가 보낸 글월보다도 더 소상하고 정성스러운 답장에 제자들로 하여금 황송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또한 집에 돌아오시면, 150여명의 정원에 온갖 과목과 화초를 심어, 전문 정원사 이상으로 손질하시고 가꾸셨다. 또한 제자들이 오면, 이렇게 정성들여 가꾼 화초를 손수 캐어 나누어 주시면서도 조금도 아까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흐뭇해 하셨다.

바쁘신 중에도 그 많은 회원들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도 그 독특한 필체로 직접 쓰셨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그 분의 지극하신 정성에 감복하여 월례연구발표회에 나왔다고 한 이도 많았다. 나는 외국에 8년 있는 동안, 해마다 버르면서도 천성이 게으른 나는 꾸물거리다가 늘 선생님의 연하장을 먼저 받고는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더구나 선생님은 후필요한 곳에 쓰라며 쓰지 않은 연하장을 몇장씩 더 넣어 보내 주셨다. 나는 이 따뜻한 여유에서 언제나 하해같은 스승의 정을 느끼며, 그 경지에 미치지 못함을 참피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전국 국어국문학회 회장을 두번이나 역임하시고,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개척자로서 「신국어교육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기셨지만, 무엇보다도 길이 남을 중요한 업적은 한국국어교육학회의 회장으로서 남기신 업적이다. 1963년 9월 한국국어교육학회가 창립된 이래 작고시까지 20여년간 회장을 역임하시며, 98회의 월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40호의 「새국어교육」학회지를 발간하셨다.

「새국어교육」은 학회지로서 40호라는 지령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국어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일선 국어과 교사들의 지도상에 있어서 실제 문제에 대한 토론과 연구 발표의 장으로서 그 구실을 다하여 왔다.

학회장으로서 20여년간 이러한 실적을 쌓기에는 남모르는 애로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학회 운영비의 조달이었다. 회원들의 회비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전국 교교 국어실력 경시대회’를 개최했을

때는, 일등 수상자에게 금메달을 주기 위하여, 사모님께서 금반지를 흔쾌히 내 놓으신 일도 있었다.

학회로서 영원히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것은 성봉 선생님께서 동국대학교를 정년퇴임하면서 받으신 퇴직금의 전액에 평소 저축금까지 합쳐 10,000,000원이란 거금을 학회기금으로 기부하신 일이다. 이 일을 어찌 학회 내의 공헌으로만 기릴 것인가. 마땅히 우리 나라 국어교육제 전체에 대한 공헌으로 높이 기려야할 것이다.

성봉 선생님의 또 하나의 업적은 누구보다도 ‘한글만 쓰기’의 실천가로서 솔선수범하신 일이다. 사석에서 동료들과의 우정을 무엇보다도 돈독히 지키시면서도 ‘한글만 쓰기’의 시비에서는 촌보의 양보도 하지 않으실 만큼 철저하셨다. 그래서 국한문 혼용을 주장하는 이들도 성봉 선생님께서 보내는 글에는 모두 한글 전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국어순화운동의 선봉으로서 강단에서는 물론, 방송을 통하여 주장하시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시며, 간판 하나의 잘못까지도 지적하시는 순회강연을 하셨다.

성봉 선생님의 회갑기념논문집에서, 이 선근 선생은 “성봉 박사만큼 학문을 사랑하고 그 학문의 사회화라 할 수 있는 국어에 대한 사랑을 혼신의 정열로 표현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였고, 김동욱 교수는 “학자 사회에서 옛날 선비의 철학이 자꾸 퇴색해 가는 오늘날, 성봉과 같은 실천적인 교육자를 다시 찾기 힘들 것이다.”라 하였으며, 정 한모 교수는 조사에서 “국어국문학회 발전사의 중요한 장을 차지하실 성봉 선생의 이름을 우리는 물론 우리 뒤에 오는 후배들도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한 바 있다.

이 분들의 가감없는 찬사로써 성봉 선생님의 영정을 여실히 그릴 수 있고, 기념탑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봉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스승으로서도, 학자로서도, 선비로서도, 한글 전용 운동 실천가로서도 성공을 다 거두시고, 한 시대를 살고 가신 영원한 거인이시다.